

육상 김덕현·배찬미, 남녀 세단뛰기 ‘金·金’

김덕현 넓이뛰기·세단뛰기 2관왕
배찬미는 대회 여자 일반부 6연패



육상 세단뛰기 강판스타인 김덕현(33)과 배찬미(27·이상 광주시청)가 제99회 전북 전국 체육대회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 대회 막바지 승전고를 울렸다.

김덕현은 17일 전북 익산시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남자 일반부 세단뛰기 결승에서 16m45를 기록하며 성진석(안산시청·16m07)을 크게 따돌리고 대회 7연패 금자탑을 세웠다.

김덕현은 지난 14일 멀리뛰기에서도 우승, 2년 연속 2관왕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남자 세단뛰기 한국기록(17m10) 보유자인 김덕현은 특히 2012년 대회부터 7년 연속 챔피언 자리를 지키며 이 부문 일인자임을 과시했다.

김덕현은 세계육상선수권에 4차례(2007년 오사카, 2009년 베를린, 2011년 대구, 2015년 베이징)나 출전한 한국 도약 종목의 역사다.

그는 이번 전국체전에서의 금메달 획득으로 향후 신기록 작성과 함께 국제대회에서 상위입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덕현은 10년 넘게 유지한 도움닫기 자세에 변화를 주며 멀리뛰기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는 꾸준한 국내의 전지훈련을 통해 도움닫기의 약점을 개선하고 스피드를 키우는데 주력했고 최근 꾸준히 8m를 넘나드는 페이스를 유지해왔다.

여자 일반부에서는 배찬미가 13m0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대회 6연패에 성공했다.

배찬미에 이어 이현정(한국체대·12m75)이 은메달을, 박민희(정선군청·12m66)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세단뛰기 한국기록은 2006년 김수연이 작성한 13m92다.

심재용 감독은 “김덕현과 배찬미는 명실공히 광주는 물론 한국 육상의 대표주자이자 대들보”라며 “꾸준한 훈련과 기량 연마로 신기록 작성과 향후 국제대회에서의 입상 가능한 선수들”이라고 말했다.

최민석기자 backdoor20@nate.com



배찬미



김덕현

김기태 감독
“나부터 변해야 하지 않을까”

“팬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감독과 선수단 모두가 알게 된 시즌이었습니다.”

이제 호랑이 군단은 더 이상 디펜딩 챔피언이 아니다. 다시 도전자의 입장으로 돌아간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넥센과의 2018 신한은행 마스터즈 KBO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6-10으로 패배, 올 시즌 모든 입장을 마쳤다.

수들이 안 좋은 부분도 있었다. 안 좋은 결과는 모두 감독의 책임이다. 선수들이 오늘 같은 게임을 잊지 말고 내년 시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기태 감독은 이번 경기 아쉬웠던 점을 떠올리며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되짚었다.

먼저 일찌감치 볼펜을 기용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경기 선발로 출전한 양현종은 4.1이닝 동안 4실점을 기록, 5회초 임창용과 교

류 상황에 넥센 선발투수 브리검이 뿌린 2구째에 몸을 맞았다. 벤트를 노리던 김선빈은 방향이 틀어 급히 들렸으나 꺾여 오는 공이 그의 오른쪽 손가락 위를 때렸다. KIA코치진은 더 이상 김선빈의 경기가 어렵다고 판단, 황윤호로 교체했다.

김기태 감독은 “직접 봤는데 손가락이 강행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는 실책이 뼈아팠다. 김선빈을 대신해 들어간 황윤호의 수비 실수와 김민식의 판단 미스 등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넥센쪽으로 넘어갔다.

분위기가 더 기울기 전에 한승택 등 다른 선수로 교체하는 것도 생각 해볼만한 일이었다.

김민식을 교체할 생각은 없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김기태 감독은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일이 조심스럽다. 김민식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그는 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김기태 감독은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말하지 않아도 어느 부분에서 좋지 않았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팬 분들께 죄송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감독과 선수단 모두가 알게 된 시즌이었다. 준비 잘 하겠다. 감독인 나부터 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경규기자 hankk42@naver.com

갑작스런 김선빈 부상 등 패인 분석 선수들 두둔 “모든 결과는 감독 책임”

정규시즌 5위로 포스트시즌 막자에 올랐지만 2차전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가을을 마감했다.

이날 KIA는 부상 우려에도 선발로 등판한 에이스 양현종이 호투를 펼쳤으나 선수들의 실책 등 부진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에 김기태 KIA 감독은 아쉬움과 함께 내년 시즌을 기억했다. 자신부터 변화겠다는 다짐과 내년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기대해준 팬들에게 죄송하며 사과한 뒤 마지막까지 뛰어준 선수들을 두둔했다.

경기를 마친 후 그는 “승리한 넥센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면서 “보시니시피 KIA 선

제했다. 하지만 임창용을 비롯한 불펜진은 넥센의 타선을 막아내지 못했다. 임창용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팻틴, 김윤동, 임기준 모두 실점을 허용했다.

예상보다 볼펜이 좀 더 일찍 나오게 됐는데 순서대로 나온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김기태 감독은 “양현종이 잘 던졌는데 구위가 떨어졌다고 봤다. 때문에 준비했던 대로 투수들을 내보냈다. 결과는 안 좋게 됐지만 계획대로 등판시킨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아쉬움은 갑작스런 김선빈의 이탈이다.

김선빈은 0-0으로 팽팽한 5회초 무사 1

배드민턴 이용대·린단·리충웨이 월드스타 트리오 인천 온다

“이용대(요넥스), 린단(중국), 리충웨이(말레이시아)”

이름만 들어도 배드민턴 팬들을 설레게 할 세 선수가 한 데 모인다.

요넥스는 12월1일 오후 5시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는 ‘레전드비전 월드투어 코리아’에 이들 셋이 함께 출격한다고 밝혔다. 레전드비전 월드투어는 배드민턴의 재미를 세계에 알리고 유소년들에게 배드민턴을 통해 꿈을 키워주기 위한 이벤트다. 국내에서 이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벤트 경기인 레전드 매치와 동호인이

참여하는 스매시 콘테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로 구성됐다.

한국을 찾은 린단은 2008 베이징올림픽과 2012 런던올림픽 남자단식을 연거푸 제패한 배드민턴계의 슈퍼스타다. 린단은 “배드민턴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포츠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공식경기 외에 한국팬들을 가까이 만날 기회가 없었기에 이번 행사가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내한을 준비하는 요넥스측은 “린단과 리충웨이는 라이벌이자 수많은 명경기를 남겼고, 국내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드민턴 슈



퍼스타다. 그리고 국내 배드민턴 아이러인 이용대, 왕년에 세계무대를 주름잡은 피터 게이드, 타우픽 히다얏도 한자리에 모여 배드민턴 팬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구입할 수 있다. 행사 당일에는 현장 판매도 한다. 티켓가격은 5천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배드민턴 유소년 발전을 위해 쓰인다.

뉴스

브래들리 주니어 썬기 만루포... 보스턴, ALCS 1패 뒤 2연승



재키 브래들리 주니어

디펜딩챔피언 휴스턴 8-2 제압

보스턴 레드삭스가 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에서 1패 뒤 2연승을 달리며 한 발 앞서갔다.

보스턴은 1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마네프리 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2018MLB ALCS(7전4선승제) 3차전에서 재키 브래들리 주니어의 썬기 만루포를 앞세워 8-2로 승리했다.

홈에서 열린 1차전을 내준 보스턴은 2차전에서 7-5로 승리했고, 적지에서 벌어진 3차전까지 잡으면서 2승 1패로 앞서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휴스턴은안방에서 열린 ALCS 첫 경기를 지면서 수세에 몰렸다.

ALCS 2차전에서 삭실이 2루타를 날리며 승리에 앞장선 브래들리 주니어는 8회초 그랜드슬램을 작렬하며 다시 한 번 수훈감이 됐다.

보스턴 우완 선발 투수 네이션 이발디는 6이닝 6피안타 2실점으로 호투를 펼쳐 팀 승리에 발판을 닦았다.

보스턴은 1회초 2점을 올리면서 기선을 제압했다.

1회초 무사 1, 2루에서 J.D.마르티네스가 우전 적시 2루타를 날려 선취점을 뽑은 보스턴은 샌더 보가츠의 내야 땅볼 때 3루에 있던 앤드류 베네티가 홈을 밟아 1점을 더했다.

휴스턴은 1회말 2사 1, 3루에서 마윈 곤살레스의 우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보스턴이 추가점을 뽑지 못한 가운데 휴스턴은 5회말 2사 1루에서 알렉스 브레그먼이 좌전 적시 2루타를 때려내 2-2 동점을 만들었다.

보스턴은 6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스티브 피어스가 좌월 솔로포를 작렬하면서 다시 3-2로 리드를 잡았다.

승부는 8회초 보스턴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보스턴은 상대 마무리 투수 로베르트 오수나를 두들겨 대거 5점을 뽑았다.

8회초 보가츠, 라파엘 데버스, 브록 홀트의 몸에 맞는 공으로 2사 만루를 만든 보스턴은 대타 미치 모어랜드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면서 1점을 추가했다.

뉴스